사회·문화 만점에 다가서기

도표 Final 자료

목차

01 | 연계교재 도표 선별 005

02 | 성 불평등 도표 019

03 | 빈곤 도표 035

[사만다 도표 Final 자료]

본 콘텐츠는 올해 Co:Re 사회탐구 연구소의 마지막 콘텐츠이자, 저희 콘텐츠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수능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회 · 문화 선택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내용을 담은 도표 콘텐츠이니 열심히 학습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연계교재 도표 선별

최근 수능 · 모의평가의 도표 문항의 난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도표 문항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기 부담스러운 현 상황에서, 도표 문항의 난도를 높인다면 연계교재의 문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계교재 도표 문항 중에서 자료 제시 방식이 특이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문항들과 함께 문항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2. 성 불평등 도표

'성 불평등 도표'가 올해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개별 문항이 있기에 학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있는' 성 불평등 도표 문항들을 선별하고 이들 각각을 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료 해석의 틀이 존재하는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의 풀이법도 제시하였습니다.

3. 빈곤 도표

'빈곤 도표'는 마지막으로 출제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기출 문제집이나 연계교재에는 꾸준히 실려 있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불안감을 주는 주제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빈곤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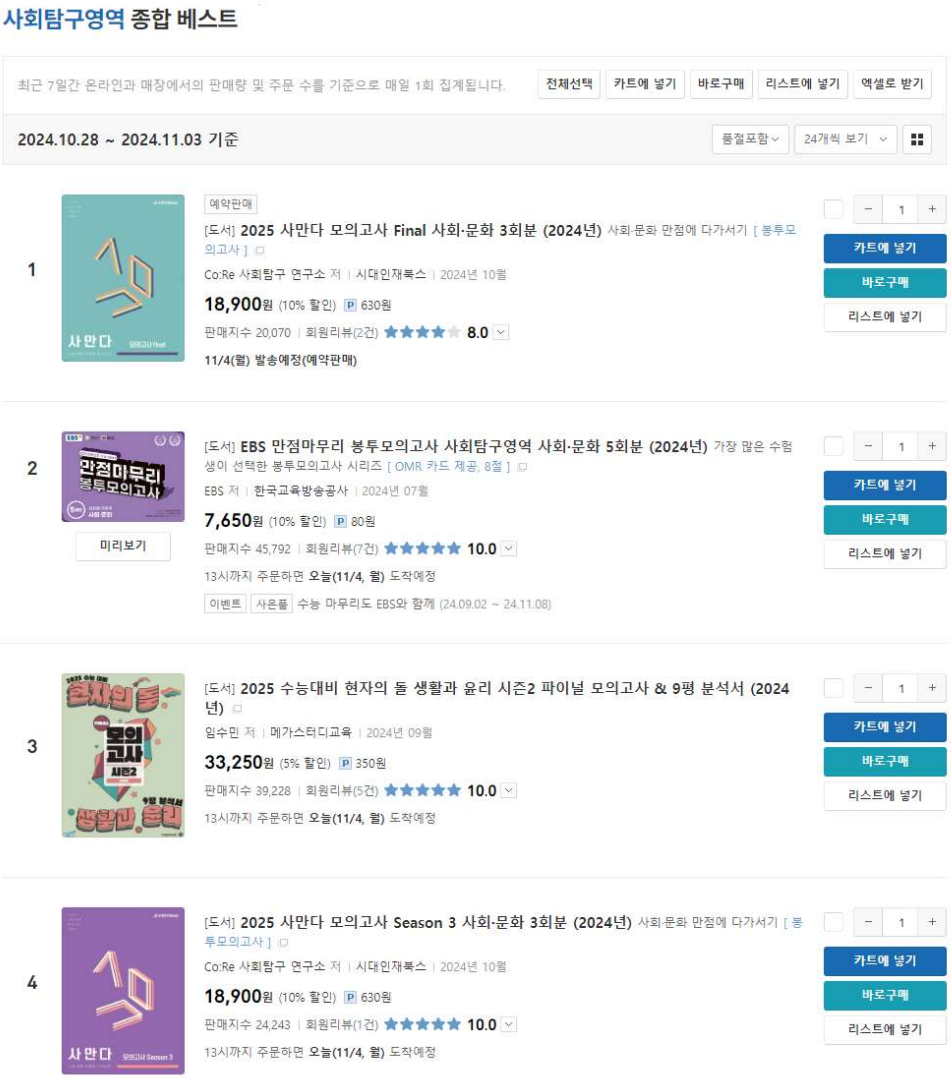
[Co:Re 사회탐구 연구소 콘텐츠 소개] ※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서 소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사만다 모의고사 시리즈 - '실전 모의고사' 본연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 모의고사

1)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적극 반영한 모의고사
2) 적절한 난도로 구성되어 실전 모의고사에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
3) 모의고사 문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하여 복습에 도움이 되는 복습 교재

*** 모의고사 구매 순서는 Final → Season 3 → Season 2 → Season 1을 권합니다. 일부 Season만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에 참고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모의고사 Final만 구매하시고, '부록으로 제공된 6·9월 모의평가 분석 → 3회분 모의고사 풀이 → 복습'의 순서로 사회·문화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콘텐츠를 선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사회·문화 만점에 다가서기

도표 Final 자료

연계교재 도표 선별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1

[2025학년도 수능완성 73쪽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에서 연령이 5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A~K를 대상으로 세대 내 이동 여부와 세대 간 이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단, 세대 내 이동 여부는 본인의 20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세대 간 이동 여부는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구분		본인의 20년 전 계층		
		상층	중층	하층
본인의 현재 계층	상층	A	H	J
	중층	D	B, E	I, K
	하층		C, F	G

구분		부모의 계층		
		상층	중층	하층
본인의 현재 계층	상층	A, H		J
	중층	D, I	B, K	E
	하층	C	F	G

①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이 세대 내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② 세대 간 이동만 경험한 사람이 세대 내 이동만 경험한 사람보다 많다.
③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모두 경험한 사람 중 이동 방향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없다.
④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 측면에서 모두 상승 이동한 사람이 모두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⑤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두 이동 중 어떤 이동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정답 ⑤

Point 1

9월 모의평가 10번의 원본(?) 문항입니다. 수능에서는 ① 계층을 익명화하고, ②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의 '<갑~병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 자료 및 별표 조건'과 같이 익명화된 계층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본 문항의 발전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Point 2

⑤번 선택지를 판단할 때, ②번 선택지 내용을 활용하면 풀이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는 '세대 간 이동만 경험한 사람', '세대 내 이동만 경험한 사람',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모두 경험한 사람', '두 이동 중 어떤 이동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②번 선택지 판단 과정에서 앞의 두 경우 각각의 사람 수를 구하고 '두 이동 중 어떤 이동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구하면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5학년도 수능완성 74쪽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갑국에서 세대 간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갑국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고, 부모의 계층은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서, 자녀의 계층은 본인의 직업에 의해서 규정된다.

<자료 1> 각 계층에 해당하는 직업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해당 직업	○, ●	◇, ◆, □, ■	△, ▲

<자료 2>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 비교

구분		아버지의 직업								계
		○	●	◇	◆	□	■	△	▲	
자녀의 직업	○	4	2	1	1	1	0	1	0	10
	●	2	2	1	2	1	1	0	1	10
	◇	1	3	1	3	3	1	2	1	15
	◆	0	2	1	3	2	2	3	2	15
	□	2	2	1	3	4	1	2	2	17
	■	1	2	2	1	1	1	2	3	13
	△	0	1	1	1	1	1	3	3	11
	▲	0	0	1	0	1	1	2	4	9
계		10	14	9	14	14	8	15	16	100

①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자녀보다 많다.
②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③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④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⑤ 부모는 상층이고 자녀는 하층인 사례가 부모는 하층이고 자녀는 상층인 사례보다 많다.

정답 ④

Point 1

정말 계층 도표에서 '시간을 쓰는' 것을 의도한다면 본 문항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① 계층을 익명화하고 ② 익명화된 계층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본 문항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료의 volume을 줄여서 오히려 연계교재 문항보다 쉽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비주얼이니,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 봅시다.

3

[2025학년도 수능완성 75쪽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표는 갑~무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갑과 을은 이동 방향이 상반되는 세대 내 이동을 하였는데, 갑은 세대 내 [㉠] 이동을, 을은 세대 내 [㉡] 이동을 하였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현재 계층	C	C	B	A	A
20년 전 계층	A	B	C	C	B

<보 기>

ㄱ. ㉠이 '상승'이고 ㉡이 '하강'이면, 현재 계층은 갑이 병보다 낮다.
ㄴ. ㉠이 '하강'이고 ㉡이 '상승'이면, 20년 전 계층은 을이 정보다 높다.
ㄷ. 병이 세대 내 상승 이동했다면, 무는 세대 내 하강 이동하였다.
ㄹ.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면, 20년 전 계층이 하층인 사람은 갑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Point 1

본 문항과 같이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에서 개방형 자료 해석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완성 73쪽 4번과 같은 자료에 본 문항과 같은 개방형 조건이 융합된 형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oint 2

C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항입니다. 갑과 을의 현재 계층이 동일하고, 갑과 을은 이동 방향이 상반되는 세대 내 이동을 했다는 점을 종합해 C가 중층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Point 3

무심코 '윗부분이 20년 전 계층, 아랫부분이 현재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④번 선택지를 골라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실전에서 실수하곤 하는 포인트이니 주의합시다.

정답	②

4

[2025학년도 수능완성 77쪽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임.)

갑국의 계층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A~C로만 구분된다. <자료 1>은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A~C의 특징을, <자료 2>는 갑국의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료 1>

구분	공통점
A와 B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이 존재한다.
B와 C	세대 간 상승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과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 중 한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

<자료 2>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계
		A	B	C	
자녀의 계층	A	24	30	6	60
	B	2	18	0	20
	C	4	2	14	20
계		30	50	20	100

① 상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
②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③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④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의 실현에 유리하다.
⑤ 중층에 속해 있는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정답 ③

Point 1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의 계층 도표는 계산이 복잡한 문항을 출제하기보다는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를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출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연계교재에 있는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는 모두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Point 2

본 문항의 경우,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이 존재하는 계층은 하층 또는 중층'이라는 사실을 통해 C가 상층임을 구한 후 <자료 2>의 내용과 '세대 간 상승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과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 중 한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조건을 종합하여 B가 하층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2025학년도 수능완성 103쪽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지만 중층 인구의 비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하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와 중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가 작아졌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계층	A	B	C
비율(%) 변동	30→50	50→40	20→10

<보 기>

ㄱ. A는 하층, C는 상층이다.
ㄴ.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는 작아졌다.
ㄷ. 사회 안정에 더 불리한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ㄹ. 상층 인구는 증가하였고, 하층 인구는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Point 1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의 계층 도표는 계산이 복잡한 문항을 출제하기보다는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를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연계교재에 있는 '계층을 결정하는 논리'는 모두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올해 연계교재에 등장한 계층 결정 논리를 실어 두었으므로, 가볍게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Point 2

본 문항의 경우, B와 C 중 무엇이 상층이고 무엇이 하층인지를 구하는 과정에 따라 문항 풀이 시간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에서 활용된, '분수와 분모, 분자 중 둘의 변화에 따라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활용하면 별다른 분수 비교 없이 자료 내용만으로 B와 C를 구할 수 있으므로, 만일 분수 비교를 통해 B와 C를 구한 학생이라면 아래 **필독**을 반드시 읽어 봅시다.

필독

갑국의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지만 중층 인구의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중층은 B 또는 C이다. A가 상층이면 하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와 중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가 모두 커지므로 A는 상층일 수 없다. 따라서 A는 하층이고, B와 C는 각각 중층과 하층 중 하나이다. 중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분수)가 작아졌고, B와 C 모두 전기(前期) 대비 후기(後期)에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상층 인구(분모)의 감소율이 중층 인구(분자)의 감소율보다 커야 한다. B의 감소율은 20(=-{(40-50)/50}×100)%, C의 감소율은 50(=-{(10-20)/20}×100)%이므로 B는 중층, C는 상층이다.

[올해 연계교재에 등장한 계층 결정 논리]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의 계층 도표는 계산이 복잡한 문항을 출제하기보다는 '계층 결정 논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계층 결정 논리를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활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올해 연계교재에 등장한 계층 결정 논리는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선별된 문항에서 제외된 문항들에 있는 계층 결정 논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1) A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계층이다. → A는 하층이다.
B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계층이다. → B는 상층이다.

- 2025학년도 수능특강 122쪽 3번 자료 -

2) B에 속한 부모는 조부모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다. → B는 하층이다.
C에 속한 자녀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을 수 없다. → C는 상층이다.

- 2025학년도 수능특강 123쪽 5번 자료 -

3) A는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계층이다. → A는 중층이다.

- 2025학년도 수능특강 123쪽 6번 자료 -

4) 자녀 세대 A에는 B와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 B와 달리 A는 하층이다.
자녀 세대 B에는 C와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 B와 달리 C는 상층이다.

- 2025학년도 수능완성 110쪽 13번 자료 -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6

[2025학년도 수능완성 80쪽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불평등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세 연도에 각각 갑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같다.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달러)	2,000	2,500	3,000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불평등 지수	40	20	10

*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불평등 지수 =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100

① 2000년에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0이다.
② 2020년에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300달러 많다.
③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의 차액은 2000년이 2010년의 2배이다.
④ 10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0년이 2020년보다 크다.
⑤ 2000년 대비 2020년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의 2배 미만이다.

정답 ④

Point 1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불평등 지수 = 100 -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100이므로,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불평등 지수를 통해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비를 알 수 있습니다.

Point 2

'두 변량의 평균은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활용하면 별도의 계산 없이도 ①번 선택지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①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참고** 박스 내용을 확인합시다.

참고

두 변량의 평균은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하므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사이의 값이다.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데, 2000년에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0%이므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0.6 <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0보다 많다.

Point 3

④번 선택지를 판단할 때, '650/1,600은 600/2,250보다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므로, 650/1,600 > 600/2,250이다.'임을 활용했는지 점검해 봅시다.

7

[2025학년도 수능특강 145쪽 8번]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 A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수급률 추이>

구분		t년	t+1년	t+2년	t+3년	t+4년
전체 노인 인구(천 명)		86	92	98	104	110
국민연금 수급률(%)		41	42	44	45	47
기초 연금 수급률(%)	전체	65	67	68	69	70
	남성	58	59	61	61	62
	여성	73	74	74	75	76

<보 기>

ㄱ. t년에 남성 노인 인구가 여성 노인 인구보다 많다.
ㄴ. 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율은 t+1년이 t+3년보다 높다.
ㄷ.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의 중복 수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ㄹ. 수혜자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모든 연도에서 A지역 전체 노인 인구의 과반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Point 1

숫자가 많아 학생들이 지레 겁먹기 쉬운 자료 형태입니다. 이런 문항의 경우, 선지화되는 내용은 대부분 도표 Guidepost의 'Theme 6. 효율적인 분수 계산'의 내용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습합시다. 본 문항의 ㄴ 선택지도 '분자가 동일하면 분모가 작은 수가 크다'를 이용하면 '{(92 - 86) / 86}×100'과 '{(104 - 98) / 98}×100'을 계산하지 않고도 't+1년과 t+3년의 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분(분자)이 6천 명으로 동일하므로, 전년의 노인 인구(분모)가 더 적은 t+1년의 노인 인구 증가율이 t+3년보다 많다.'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oint 2

ㄷ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도에서 국민연금 수급률(%) + 기초 연급 수급률(%) > 100이므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의 중복 수혜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체크했어야 합니다.

8

[2025학년도 수능완성 88쪽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A와 B>
A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B :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우리나라 갑 권역의 각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갑 권역 전체
A의 수급자	12	6	10
B의 수급자	11	14	12

* 갑 권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구분됨.
**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각각 50%임.

①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② 상호 부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많다.
③ 갑 권역 전체에서 의무 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적다.
④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의 4배이다.
⑤ (가) 지역과 (나) 지역에서 모두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과반수이다.

정답 ④

Poin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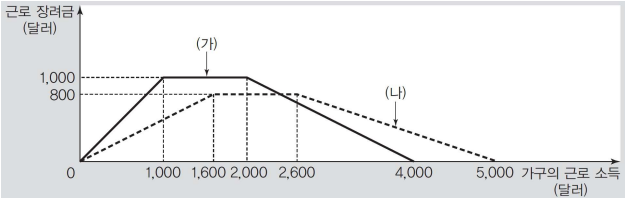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A, B 중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임을 기억합시다.

9

[2025학년도 수능완성 89쪽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의 근로 소득 범위 및 근로 장려금 산정 방식은 (가)와 (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림은 갑국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가구별 구성원 수는 모두 같다.



① ㉠은 선별적 복지 이념이 아닌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에서 가구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소득과 근로 장려금의 합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③ 근로 소득이 800달러인 가구의 경우, 근로 장려금은 (가)가 (나)보다 300달러 많다.
④ 근로 소득이 3,200달러인 가구의 경우, 근로 장려금은 (나)가 (가)보다 200달러 많다.
⑤ 근로 소득이 1,0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증가하면,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의 비가 (가)의 경우 일정하고, (나)의 경우 커진다.

정답 ④

Point 1

가구의 근로 소득에 따른 근로 장려금을 구하기 위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완성한 후 이에 근로 소득을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아래 **지름길** 박스에 제시된 것처럼 기울기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수를 완성한 후 이에 근로 소득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이한 학생이라면 아래 **지름길** 박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지름길

$2{,}000 \le x \le 4{,}000$에서 (가)의 기울기는 $-(1/2)$, $2{,}600 \le x \le 4{,}000$에서 (나)의 기울기는 $-(1/3)$이다. (가)의 경우 3,200은 2,000에서 1,200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x = 2{,}000$에서의 함숫값인 1,000에 비해 $600(= 1{,}200 \times 1/2)$만큼 감소하였고, (나)의 경우 3,200은 2,600에서 600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x = 2{,}600$에서의 함숫값인 800에 비해 $200(= 600 \times 1/3)$만큼 감소하였다. 따라서 $x = 3{,}200$에서의 함숫값은 (가)가 $400(= 1{,}000 - 600)$, (나)가 $600(= 800 - 200)$이므로 (나)가 (가)보다 200달러 많다.

Point 2

그래프의 모양만 얼핏 보면 ②, ⑤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도 본 문항과 같이 착시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한 적이 있고, 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문항 난도에 비해 낮았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2025학년도 수능완성 105쪽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금: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갑국의 각 지역 인구 중 ○○연금, △△연금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연금	30	15	㉠	18
△△연금	15	10	20	㉡
○○연금과 △△연금 중복 수급자	5	8	10	8

* ○○연금과 △△연금 중복 수급자의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4배임.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함.

① ㉠은 '15', ㉡은 '14'이다.
② A 지역 인구가 200명이라면, 갑국 전체 인구에서 ○○연금 수급자는 200명을 넘는다.
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④ ○○연금과 △△연금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의 수는 A 지역이 C 지역보다 적다.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많다.

정답 ①

Point 1

'부분의 합은 전체와 동일하다.'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가중 평균' 문항의 두 가지 자료 해석 방법을 모두 익혀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문항입니다. 지역별 인구의 비가 A 지역 : B 지역 : C 지역 = 2 : 5 : 3임을 구하는 것은 둘 중 어느 것을 활용해도 괜찮지만,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활용하여 ㉠을 구하려 했다면 계산 과정에서 분수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간의 직관이 필요하므로 ㉠을 구하는 데는 '부분의 합은 전체와 동일하다.'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1

[2025학년도 수능완성 110쪽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다)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 65세 이상 성별 인구 중 (가)~(다) 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t년		t+50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 수혜자	68	72	60	66
(나) 수혜자	12	16	7	10
(다) 수혜자	21	17	17	20

* t년 갑국 65세 이상 인구 중 (가) 수혜자 비율은 70%임.
** 갑국 65세 이상 인구와 (다) 수혜자 수는 모두 t+50년이 t년의 1.5배임.

① 65세 이상 남성 인구와 65세 이상 여성 인구 모두 t+50년이 t년보다 많다.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t+50년 65세 이상 여성 수혜자 수가 t년 65세 이상 수혜자 수보다 많다.
③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제도의 경우, t년 65세 이상 수혜자 수가 t+50년 65세 이상 수혜자 수보다 많다.
④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t년 65세 이상 여성 수혜자 수가 t+50년 65세 이상 남성 수혜자 수보다 많다.
⑤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 모두 t+50년 65세 이상 인구 중 수혜자 비율이 t년 65세 이상 인구 중 수혜자 비율보다 높다.

정답 ③

Point 1

'갑국 65세 이상 인구과 (다) 수혜자 수는 모두 t+50년이 t년의 1.5배임.' 이라는 조건을 통해 65세 이상 인구 중 (다) 수혜자 비율은 t년과 t+50년이 동일하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문항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분자의 변화율과 분모의 변화율이 동일하다면 분수는 동일함을 기억합시다,

12

[2025학년도 수능완성 115쪽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복지 제도 (가), (나)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A~C 지역의 인구는 각각 100만 명으로 동일하다. 복지 제도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가)와 달리 상호 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가), (나) 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일치하고, 갑국에는 복지 제도가 (가), (나)만 있다.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20	15	25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30	25	30
(가), (나) 중복 수급자	10	10	15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②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갑국 총인구의 60%이다.
③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C 지역보다 많다.
④ 각 지역 인구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A 지역보다 작다.
⑤ 각 지역 인구 중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고, A 지역과 C 지역은 같다.

Point 1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 '(가) 단독 수급자',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 '(나) 단독 수급자'임을 활용하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자료를 해석하면 됩니다.

정답 ②

사회·문화 만점에 다가서기

도표 Final 자료

성 불평등 도표

[들어가며]

'성 불평등 도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 총 10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성 불평등 도표' 학습을 배제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마음 한 켠에 '혹시 수능 날 뒤통수를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비교적 간단하게 '성 불평등 도표'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으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art 1. 개념 설명

1. Introduction

(1) 성 불평등 도표 Part 구성

성 불평등 도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 불평등 도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 불평등 도표 문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배울 것이 있는' 성 불평등 도표 문항들을 선별하고 이들 각각을 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료 해석의 틀이 존재하는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의 풀이법도 제시하였습니다.

2.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1) Introduction

평가원 시험에는 단 1번(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번) 출제되었지만, 연계교재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하곤 하는 유형의 도표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외하면 '성 불평등 도표'에서 따로 공부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내용도 '가중 평균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한번 가볍게 읽어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2)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위에서 이야기한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는 가중 평균의 역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① : **가중 평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12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80달러일 때,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몇 달러인가?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② :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4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몇 달러인가?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① : **가중 평균**'에서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므로, |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a)는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b)와 동일하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40(= 120 - 80)달러이므로, a = b = 20(= 40 ÷ (1 + 1))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100(= 120 - 20 = 80 + 20)달러가 되는 것이지요. '② :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에서도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므로,

|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a)는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b)와 동일하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활용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가 40(= 40×(100÷100))달러이므로, a = b = 20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 100 + 20)달러이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80(= 100 - 20)달러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집단 크기의 비가 1 : 1인 경우만을 다루었으니, 이제는 이를 확장하여 집단 크기의 비가 1 :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① : 가중 평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12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70달러일 때,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몇 달러인가?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3 : 2이다.)
② :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5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몇 달러인가?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3 : 2이다.)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① : **가중 평균**'에서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3 : 2이므로, |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2 : 3[1]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a)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b)의 비는 2 : 3이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50(= 120 - 70)달러이므로, a = 20(= {50÷(2 + 3)}×2)달러, b = 30(= {50÷(2 + 3)}×3)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100(= 120 - 20 = 70 + 30)달러가 되는 것이지요. '② :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에서도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3 : 2이므로, |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 = 2 : 3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a)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b)의 비는 2 : 3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활용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가 50(= 50×(100÷100))달러이므로, a = 20(= {50÷(2 + 3)}×2)달러, b = 30(= {50÷(2 + 3)}×3)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 100 + 20)달러이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70(= 100 - 30)달러가 되는 것이지요.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풀이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풀이법

i) 두 집단 사이의 거리(e.g.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ii) '두 집단 사이의 거리'를 '집단 크기의 비'를 활용해 비례배분하여 각 집단의 값과 전체 평균의 차를 구한다.

iii) ii)에서 얻은 값을 전체 평균에 가감한다.

위의 말을 보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 다음 페이지의 예제를 통해 풀이법에 익숙해져 봅시다.

1) '집단 크기(가중치)'의 비는 '수(또는 비율)과 가중 평균의 차'의 비와 반대입니다. 즉, 집단 크기의 비가 (A 집단) : (B 집단) = a : b라면, (A 집단의 수(또는 비율)과 가중 평균의 차) : (B 집단의 수(또는 비율)과 가중 평균의 차) = b : a입니다.

(3) 중간 점검을 위한 예제

이제 예제를 통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빠른 정답은 페이지 맨 아래에, 예제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예제 1]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5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예제 2]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2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4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예제 3]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3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2이다.)

[예제 4]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3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 )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2 : 3이다.)

[빠른 정답]

[예제 1] 125, 75
[예제 2] 240, 160
[예제 3] 120, 90
[예제 4] 336, 276

[예제 해설]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예제 1]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5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5)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75)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 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의 거리는 50(= 50 × (100 ÷ 100))달러이다.

ii) 50 ÷ (1 + 1) = 25이므로, 50을 1 : 1로 비례배분하면 25 : 25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25(= 25 × 1)달러로 동일하다.

ii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5(= 100 + 25)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75(= 100 − 25)달러이다.

[예제 2]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2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4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4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0)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1이다.)

→ 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의 거리는 80(= 40 × (200 ÷ 100))달러이다.

ii) 80 ÷ (1 + 1) = 40이므로, 80을 1 : 1로 비례배분하면 40 : 40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40(= 40 × 1)달러로 동일하다.

ii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40(= 200 + 4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0(= 200 − 40)달러이다.

[예제 3]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3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90)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1 : 2이다.)

→ 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의 거리는 30(= 30 × (100 ÷ 100))달러이다.

ii) 30 ÷ (2 + 1) = 10이므로, 30을 2 : 1로 비례배분하면 20 : 10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20(= 10 × 2)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10(= 10 × 1)달러이다.

ii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 100 + 20)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90(= 100 − 10)달러이다.

[예제 4]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300달러이고,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일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6)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76)달러이다. (단,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2 : 3이다.)

→ 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의 거리는 60(= 20 × (300 ÷ 100))달러이다.

ii) 60 ÷ (3 + 2) = 12이므로, 60을 3 : 2로 비례배분하면 36 : 24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36(= 12 × 3)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24(= 12 × 2)달러이다.

iii)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6(= 300 + 36)달러,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76(= 300 − 24)달러이다.

Part 2. 핵심 기출 분석

13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표는 어느 해의 성별·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교육 수준별 \ 성별	여성	남성
초졸 이하	67.7	63.8
중졸	50.4	51.7
고졸	44.9	32.5
대졸 이상	32.2	16.8

<보 기>

ㄱ.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ㄴ.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77.1%이다.
ㄷ.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ㄹ.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가 더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Comment]

✓ ㄷ 선택지를 판단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답은 맞았지만 풀이는 틀렸으므로 반드시 ㄷ 선택지 아래의 **필독**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자. 향후 잘못된 풀이를 저격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풀이]

ㄱ.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63.8%가 비정규직이므로,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ㄷ.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초졸 이하가 63.8% 초과 67.7% 미만, 중졸이 50.4% 초과 51.7% 미만, 고졸이 32.5% 초과 44.9% 미만, 대졸 이상이 16.8% 초과 32.2% 미만이다. 따라서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필독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가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체의 비율이 부분의 비율 사이에 있기 때문인데,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고졸 남성'의 비율만 살짝 바꿔 보자.

교육 수준별 \ 성별	여성	남성
초졸 이하	67.7	63.8
중졸	50.4	51.7
고졸	44.9	**30.4**
대졸 이상	32.2	16.8

위와 같이 바꾼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여전히 참이다. 하지만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고졸이 30.4% 초과 44.9% 미만이고 대졸 이상이 16.8% 초과 32.2%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오답 풀이]

ㄴ.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2% 초과 44.9%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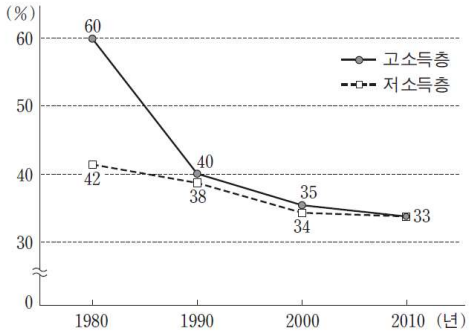
ㄹ. 상대수만 보면 맞아 보이는 함정 선택지이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율(상대수)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지만, 각 성별의 대졸 임금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수(절대수)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②

1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그림은 갑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3점]



*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남성 평균 임금−여성 평균 임금)÷남성 평균 임금]×100

① 1980년에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이다.
② 1990년에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보다 크다.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같다.
⑤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해설

[Comment]

✓ 이 문항에서 활용된 선택지 판단 방법은 다른 문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선택지의 판단 방법을 모두 숙지하도록 하자.

[자료 분석]

자료에 주어진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식의 분모와 분자를 (남성 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1 - (여성 평균 임금) / (남성 평균 임금)) × 100이므로, 100 -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 ((여성 평균 임금) / (남성 평균 임금)) × 100이다. 이를 활용하여 시기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고소득층	40	60	65	67
저소득층	58	62	66	67

[정답 풀이]

⑤ **[자료 분석]**의 표를 보면 저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비율은 1980년이 58%, 2010년이 67%이다. 따라서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오답 풀이]

① 1980년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을 100a라고 하면 여성 평균 임금은 40a인데, (여성 평균 임금) <(전체 평균 임금) <(남성 평균 임금)이므로 1980년 고소득층에서 전체 평균 임금은 40a 초과 100a 미만이다. 따라서 1980년 고소득층에서 전체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비는 0.4 초과 1 미만이므로, 1980년에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일 수 없다.

② 1980년 저소득층 남성 평균 임금을 100b, 1990년 저소득층 남성 평균 임금을 100c라고 하면 1980년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58b, 1990년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62c이다. 저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b < c이다. 따라서 (62c - 58b) / 58b > (62b - 58b) / 58b이고, 4 / 58 > 4 / 100이므로 1990년에 10년 전과 비교한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의 증가율은 4% 초과이다.

지름길

'62 - 58 = 4'임을 활용한 함정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무튼 4% 증가한 건 아님'을 밝히는 데 집중해 보자. 1990년에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면, 1990년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60.32b(= 58b × 1.04)여야 한다. 하지만 1990년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62c이고 b < c이므로 60.32b는 62c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1990년에 10년 전 대비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의 증가율은 4%가 아니다.

③ 1990년 고소득층 남성 평균 임금을 100d, 2000년 고소득층 남성 평균 임금을 100e라고 하면 1990년 고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60d, 2000년 고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65e이다.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100e - 100d) / 100d} × 100,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65e - 60d) / 60d} × 100이다. (100e - 100d) / 100d = (60e - 60d) / 60d < (65e - 60d) / 60d이므로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보다 작다.

도구 활용하기

'분수와 분모가 모두 증가했다면,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다.'를 활용하자.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비(분수)와 남성 평균 임금(분모)이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여성 평균 임금(분자)의 상승률이 남성 평균 임금(분모)의 상승률보다 크다.

④ 상대수만 보면 맞아 보이는 함정 선택지이다. 2010년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상대수)는 33으로 동일하지만, 자료에는 고소득층의 소득과 저소득층의 소득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료 내용만으로는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절대수)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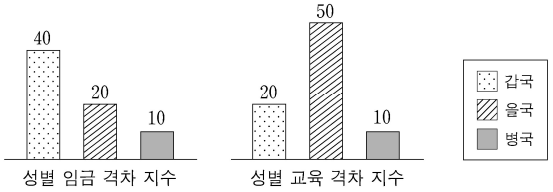
정답	⑤

1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학자 A는 성별 임금 격차 지수와 성별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갑~병국의 성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림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교육 격차 지수는 사회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단, 갑~병국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는 모두 1 : 1이다.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 성별 교육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평균 교육 연수 - 여성 평균 교육 연수)}}{\text{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 \times 100$

①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배이다.

②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3배이다.

③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비보다 작다.

④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을국이 갑국보다는 작지만 병국보다는 크다.

⑤ 갑~병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와 사회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동일하다.

해설

[Comment]

✓ 예상 정답률 20%를 밑도는 초고난도 문항인데, 연계 체감이 매우 큰 연계 문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연계교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킬러 문항 배제'가 출제 원칙으로 천명된 상황에서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한 고난도 도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으므로 최소한 연계교재를 풀면서 특이한 부분들은 정리해 놓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하도록 하자.

✓ '성 불평등 도표 공부'라고 할 만한 거의 유일한 내용인 '분모가 평균인 격차 문항'이다. **[자료 분석]**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앞의 '**2. 분모가 평균인 격차 도표**' 부분을 다시 공부하자.

[자료 분석]

갑국의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을 100a라고 가정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40a(= 40 × (100a ÷ 100))이고, 갑국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가 1 : 1이므로, 40a를 1 : 1로 비례배분하면 20a(= 40a ÷ (1 + 1)) 임을 활용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까지의 거리는 20a(= 20a × 1)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a(= 100a + 20a),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80a(= 100a - 20a)이다. 같은 방식으로 을국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을 100b라고 가정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10b(= 100b + 10b),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90b (= 100b - 10b)이고 병국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을 100c라고 가정하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05c(= 100c + 5c),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95c(= 100c - 5c)이다.

갑국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를 10d년이라고 가정하면, 남성 평균 교육 연수로부터 여성 평균 교육 연수까지의 거리는 2d (= 20 × (10d ÷ 100))이고, 갑국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가 1 : 1 이므로, 2d를 1 : 1로 비례배분하면 d(= 2d ÷ (1 + 1))임을 활용하면 남성 평균 교육 연수로부터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까지의 거리와 여성 평균 교육 연수로부터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까지의 거리가 d(= d × 1)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11d(= 10d + d)년, 여성 평균 교육 연수는 9d(= 10d - d)년이다. 같은 방식으로 을국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를 10e년이라고 가정하면,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12.5e (= 10e + 2.5e)년, 여성 평균 교육 연수는 7.5e(= 10e - 2.5e)년이고 병국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를 10f년이라고 가정하면,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10.5f(= 10f + 0.5f)년, 여성 평균 교육 연수는 9.5f(= 10f - 0.5f)년이다.

[정답 풀이]

①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120a)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80a)의 1.5배이다.

[오답 풀이]

②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12.5e년)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7.5e년)의 5/3배이다.

③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약 0.90(= 95c/105c),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비는 약 0.82(= 9d/11d)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④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갑국이 0.67(= 80a/120a), 을국이 약 0.82(= 90b/110b). 병국이 약 0.90(= 95c/105c)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을국이 갑국보다는 크지만 병국보다는 작다.

⑤ 갑~병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가장 높은 갑국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성별 교육 격차 지수가 가장 높은 을국이다. 따라서 갑~병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와 사회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다르다.

정답	①

16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기업 직원의 연봉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기업의 연봉은 1구간에서 시작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

연봉 구간		구성 비율(%)		여성비
		여성	남성	
1구간	2만 달러 미만	13	5	1.61
2구간	2만 달러 이상 4만 달러 미만	57	32	1.10
3구간	4만 달러 이상 6만 달러 미만	18	29	0.38
4구간	6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	7	15	0.29
5구간	8만 달러 이상	5	19	0.16
전체		100	100	0.62

* 여성비 $= \frac{\text{여성 수}}{\text{남성 수}}$

** 여성비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①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이다.

②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적다.

③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다.

④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해설

[Comment]

✓ ⑤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여성비'를 이용하여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 연산량의 최소화와 직관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문항이다. 전체 여성 직원 수와 전체 남성 직원 수의 비가 62 : 100이라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면, ①~④번 선택지는 별다른 계산 없이 진위 판별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답인 ⑤번 선택지가 '구간별 여성비'와 '구간별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상당한 직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는 소거법으로라도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인 '구간별 여성비'에 현혹되어 무리한 계산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정답 풀이]

⑤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 (남성 직원 수) / (남성 직원 수 + 여성 직원 수)이다. 해당 식 우변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남성 직원 수)로 나누면, 1 / (1 + 여성비)이므로,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비와 부(-)의 관계이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오답 풀이]

①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약 38.2(= (62/162) × 100)%이다.

지름길

여성비가 0.62임을 활용한 함정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무튼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는 아님.'을 밝히는 데 집중해 보자. 전체의 여성비는 (전체 여성 직원 수) / (전체 남성 직원 수)인데, 전체 여성 직원 수가 전체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여성 직원 수) / (전체 여성 직원 수 + 전체 남성 직원 수)이므로 두 수는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가 아니다.

② 남성 직원 중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의 비율과 여성 직원 중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5%로 동일하지만,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많으므로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많다.

③ 전체 남성 직원 수를 100a명이라고 하면,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15a명,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는 약 4.34a명이다. 따라서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지 않다.

지름길

'15 - 7 = 8'임을 활용한 함정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무튼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은 건 아님.'을 밝히는 데 집중해 보자. 전체 여성 직원 수를 100b명이라고 하면,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는 7b명이므로,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가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다면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7.56b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남성 직원 수를 100a명이라고 하면,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15a명인데 a > b(∵ 여성비 = 0.62)이고 15 > 7.56이므로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의 108%보다 많다. 따라서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지 않다.

④ 표를 보면,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1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t년 연령대별 남녀 임금을 조사하여 구성한 것이다.

연령대	여성 임금비	20대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	
		남성	여성
10대	88	40	39
20대	90	100	100
30대	75	㉠	145
40대	61	200	㉡
50대	50	190	105
60대	47	114	60

* 여성 임금비 $= \frac{\text{여성 평균 임금}}{\text{남성 평균 임금}} \times 100$

** 여성 임금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20대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20대 남성(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연령대별 남성(여성)의 상대적 평균 임금임.

① ㉠은 180보다 작고, ㉡은 130보다 크다.

②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40대가 가장 높다.

③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작다.

④ 연령대별 남녀 평균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⑤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남성 임금 총액의 40%보다 크다.

해설

[Comment]

✓ 흉악한 예상 정답률 덕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사회·문화 수험생인 우리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등식을 활용한 수 계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정도만 머리에 담아 두도록 하자.

✓ 해설에는 학습을 위해 **[자료 분석]**에 완성된 '연령대별 성별 평균 임금과 남녀 평균 임금 차이' 표를 제시해 주고, 이를 활용한 풀이도 실어 두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자료 분석]**의 '연령대별 성별 평균 임금과 남녀 평균 임금 차이' 표를 다 완성한 후에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구해야 함을 기억하자. 시간 단축을 위한 실전적 풀이는 각 선택지 해설 아래 **지름길** 박스에 수록해 두었으니, 반드시 숙지하자.

✓ ③번 선택지를 판단할 때 '두 변량의 평균은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한다.'를 활용했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분석]

20대 남성 평균 임금을 100a, 20대 여성 평균 임금을 100b라고 하면, $b/a \fallingdotseq 0.9$($\because$ $100b/100a \fallingdotseq 0.9$)이다. 이를 활용하여 30대 여성 임금비에 관한 식을 세우면 $145b/(㉠ \times a) \fallingdotseq 0.75$이고, 40대 여성 임금비에 관한 식을 세우면 $(㉡ \times b)/200a \fallingdotseq 0.61$이다.

$145b/(㉠ \times a) = (145/㉠) \times (b/a) \fallingdotseq (145/㉠) \times 0.9 \fallingdotseq 0.75$이고, 이를 정리하면 $㉠ \fallingdotseq 174$이다. 또한 $(㉡ \times b)/200a = (㉡/200) \times (b/a) \fallingdotseq 0.61$이고, 이를 정리하면 $㉡ \fallingdotseq 136$이다.

지름길

○ '180', '13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면,
- $145 \times 0.9 / ㉠ \fallingdotseq 0.75 = 135 / 180$인데, $145 \times 0.9 < 135$이므로, ㉠은 180보다 작다.
- $㉡ \times 0.9 / 200 \fallingdotseq 0.61 = 122 / 200$인데, $122 \div 0.9 > 130$이므로, ㉡은 130보다 크다.

위의 내용을 활용하여 20대 남성 평균 임금을 100a라고 두고, 연령대별 성별 평균 임금과 남녀 평균 임금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	남성	여성	남녀 평균 임금 차이
10대	40a	약 35.1a	약 4.9a
20대	100a	약 90a	약 10a
30대	약 174a	약 130.5a	약 43.5a
40대	200a	약 122.4a	약 77.6a
50대	190a	약 94.5a	약 95.5a
60대	114a	약 54a	약 60a

[정답 풀이]

① ㉠은 180보다 작고, ㉡은 130보다 크다.

[오답 풀이]

② '20대 기준 상대적 평균 임금 표'를 활용하면, 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다.

③ 40대 전체 평균 임금은 40대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 사이의 값이므로, 약 122.4a 초과 200a 미만이다. 따라서 40대 전체 평균 임금 대비 40대 여성 평균 임금의 비는 약 61($\fallingdotseq (122.4a / 200a) \times 100$)% 초과 100($= (122.4a / 122.4a) \times 100$)% 미만이므로,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크다.

지름길

두 변량의 평균은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하므로, 전체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 사이의 값이다.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남성 평균 임금의 약 61%이므로, (40대 여성 평균 임금) ÷ (40대 남성 평균 임금) $\fallingdotseq 0.61 <$ (40대 여성 평균 임금) ÷ (40대 전체 평균 임금)이다. 따라서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크다.

④ **[자료 분석]**의 표를 보면, 남녀 평균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50대보다 60대가 작다. 따라서 연령대별 남녀 평균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50대 남성 취업자 수를 150k명, 50대 여성 취업자 수를 100k명으로 두면 50대 남성 임금 총액은 28,500ak,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약 9,450ak이다. 따라서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남성 임금 총액의 40%보다 작다.

지름길

50대 남성 평균 임금은 50대 여성 평균 임금의 약 2배이므로,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50대 남성 임금 총액은 50대 여성 임금 총액의 약 3배이다. 따라서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남성 임금 총액의 40%보다 작다.

정답	①

MEMO

사회·문화 만점에 다가서기

도표 Final 자료

빈곤 도표

[들어가며]

'빈곤 도표'는 마지막으로 출제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기출 문제집이나 연계교재에는 꾸준히 실려 있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불안감을 주는 주제입니다. '성 불평등 도표'와 마찬가지로 '빈곤 도표'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으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art 1. 개념 설명

1. 빈곤 도표

(1) 빈곤 도표 풀이의 기본

'빈곤 도표 풀이의 기본'에는 i) 빈곤선과 빈곤율의 관계, ii)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또는 인구) 간의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i)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또는 인구) 간의 포함 관계'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개념 문항의 선택지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빈곤 도표 문항만을 위한 별도의 지식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니 반드시 익혀 둡시다.

i) 빈곤선과 빈곤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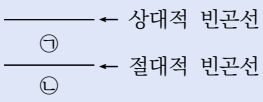
'빈곤선과 빈곤율의 관계'에서 기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빈곤율이 높으면 빈곤선이 높다. 즉,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이면 (절대적 빈곤선) > (상대적 빈곤선)이고,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면 (상대적 빈곤선) > (절대적 빈곤선)이다.
> ii) 빈곤선과 빈곤율은 비례 관계가 아니다. 예컨대,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의 2배라고 해서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의 2배인 것은 아니다.

ii)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또는 인구) 간의 포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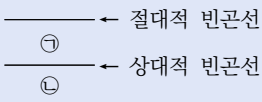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또는 인구) 간의 포함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 빈곤선 >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 가구(또는 인구) = ㉠ + ㉡, 절대적 빈곤 가구(또는 인구) = ㉡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또는 인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절대적 빈곤선 > 상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 가구(또는 인구) = ㉠ + ㉡, 상대적 빈곤 가구(또는 인구) = ㉡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또는 인구)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2) 중간 점검을 위한 예제

이제 예제를 통해 위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빠른 정답은 아래에,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제 1]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t+3년에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 초과이다.)

(단위 : %)

구분	t년	t+1년	t+2년	t+3년
A	10	12	15	17
B	9	24	18	25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① t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초과이다. (○, ×)
② t+1년에 중위 소득의 50% 금액은 최저 생계비의 2배이다. (○, ×)
③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 ×)

[빠른 정답]

[예제 1] ① ○ ② × ③ ○

[예제 해설]

[예제 1]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t+3년에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 초과이다.)

(단위 : %)

구분	t년	t+1년	t+2년	t+3년
A	10	12	15	17
B	9	24	18	25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t+3년에 (중위 소득) > 2×(최저 생계비)이므로, (중위 소득의 50%) > (최저 생계비)이다. 따라서 t+3년에 (상대적 빈곤선) > (절대적 빈곤선)이다. 빈곤율이 높으면 빈곤선이 높으므로,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① t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초과이다. (○)

→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고 빈곤율이 높으면 빈곤선이 높으므로 t년에 (절대적 빈곤선) > (상대적 빈곤선)이다. 따라서 t년에 (최저 생계비) > (중위 소득의 50%)이므로, t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초과이다.

② t+1년에 중위 소득의 50% 금액은 최저 생계비의 2배이다. (×)

→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고 빈곤율이 높으면 빈곤선이 높으므로 t+1년에 (상대적 빈곤선) > (절대적 빈곤선)이다. 따라서 t+1년에 (중위 소득의 50%) > (최저 생계비)이다. 하지만 빈곤선과 빈곤율이 비례 관계인 것은 아니므로, t+1년에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2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

→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t+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높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에 대항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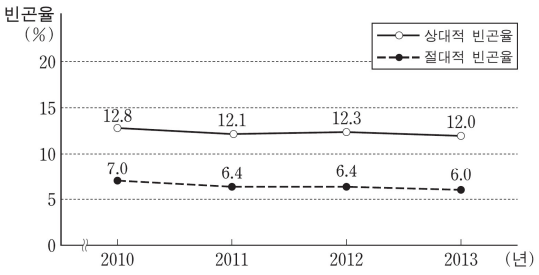
MEMO

Part 3. 핵심 기출 분석

18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자료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①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②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③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④ 2013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이다.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해설

[정답 풀이]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연도에 (중위 소득의 50%) > (최저 생계비)이므로, 0.5 > (최저 생계비) / (중위 소득)이다. 즉,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오답 풀이]

① 2010년에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므로,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가 있다.

②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므로, '가구 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인구'에 대한 비교 결과에 활용할 수 있다. 2011년에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의 2배 미만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미만이다. 따라서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지 않다.

③ 상대수만 보면 맞아 보이는 함정 선택지이다.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졌고, 절대적 빈곤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의 전체 가구 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2013년에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따라서 2013년에 (중위 소득의 50%) > (최저 생계비)이므로, (중위 소득) > 2×(최저 생계비)이다. 즉, 2013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 초과이다.

정답	⑤

19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 기>

ㄱ.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ㄷ. 2010년 대비 2011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ㄹ.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Comment]

✓ ㄱ 선택지의 판단 논리를 익혀 둘 필요가 있다.

[정답 풀이]

농촌 가구와 도시 가구의 구성비가 1 : 1이므로 농촌 가구와 도시 가구 빈곤율의 산술평균이 갑국의 전체 빈곤율이다.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농촌 가구의 빈곤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농촌 가구	절대적 빈곤율	10.5	12.0
	상대적 빈곤율	12.0	15.0

[정답 풀이]

ㄱ. 2010년 절대적 빈곤율은 7.5%이다. 만약 모든 가구의 소득이 같다면, 어떤 가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가구들의 소득 점유율이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든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므로 상대적 빈곤율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0년 전체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0%가 아니므로 2010년 가구별 소득 분포는 불균등하며, 이런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총합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 미만이다.

ㄴ. 2011년 농촌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므로,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오답 풀이]

ㄷ. 2010년 대비 2011년에 두 지역 모두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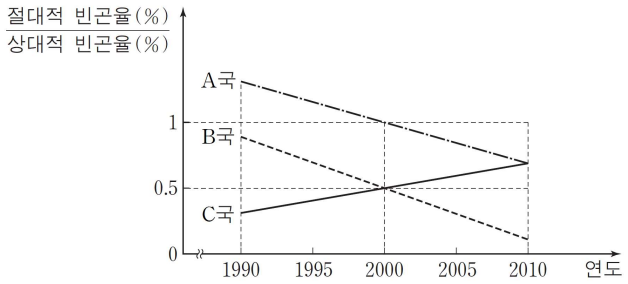
ㄹ.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인데, 도시에서 이 값은 2010년에 3.5%, 2011년에 5%이다. 도시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10년에 4.5%, 2011년에 4%이므로 2010년과 2011년 모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미만이다.

정답	①

20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 기>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중위 소득의 1/2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해설

[Comment]

✓ ㄱ과 ㄴ 선택지를 판단하는 논리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과 유사하므로 **[오답 풀이]**를 꼭 참고하자.

[자료 분석]

$\frac{\text{절대적 빈곤율(\%)}}{\text{상대적 빈곤율(\%)}} =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 / \text{전체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 / \text{전체 가구 수}} \times 100$

$=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 \times 100$이다.

[정답 풀이]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은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높다. 따라서 B국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 생계비) < (중위 소득의 1/2)이므로, 중위 소득의 1/2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높다.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높으면,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오답 풀이]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경우 $\frac{\text{절대적 빈곤율(\%)}}{\text{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므로,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경우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수)는 감소하였고, 절대적 빈곤 가구 수(분자)는 증가하였으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모) 또한 증가하였다. 분수가 감소하였고 분자가 증가하였다면, 분모 또한 증가했으며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국의 경우 $\frac{\text{절대적 빈곤율(\%)}}{\text{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므로,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국의 경우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수)는 증가하였고, 절대적 빈곤 가구 수(분자)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모)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자가 증가했더라도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낮다면, 분모와 분자 모두 증가했지만 분수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지만,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frac{\text{절대적 빈곤율(\%)}}{\text{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므로,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의 경우 $\frac{\text{절대적 빈곤 가구 수}}{\text{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수)는 감소하였고, 절대적 빈곤 가구 수(분자)는 증가하였으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모)의 증가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 수(분자)의 증가율보다 높다. 분수가 감소하였고 분자가 증가하였다면, 분모 또한 증가했으며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

정답	③

○ 도표 Final 자료 기획 · 집필 · 감수

- 강지묵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 고다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 김힘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 박세빈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시문종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 조현재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 곽도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구기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준형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 송지광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신상명 동국대학교 법학과

○ Co:Re 사회탐구 연구소와의 소통 창구

1) 인스타그램 계정 co.re_samun을 팔로우하시거나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oresamun)에 가입하시면, 저희 연구소와 콘텐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본 콘텐츠의 정오표는 시대인재북스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오표를 업로드한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 및 카페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3) 본 콘텐츠에 관한 질문 및 오류 사항 제보는 coresamun@gmail.co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희 콘텐츠에 관한 후기를 작성하신 후,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네이버 카페에 알려 주세요. 매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